통도사, 1400년 전통 '보살계 수계산림' 연다

4월 21일~23일 설법전서 봉행
신라 자장 율사 이래 전통 이어져
대승불교 실천 윤리 '범망계' 설해
'영축장학금' 전달 인재 불사 의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가 1400년 전통의 청정 계맥을 잇고 일상 속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대규모 법석을 연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대승보살의 실천 계율을 설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불기 2570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봉행한다.

매년 음력 3월에 열리는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신라 자장 율사가 서기 646년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모셔와 금강계단을 축조하고 계를 설한 데서 유래한다. 통도사는 140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계맥(戒脈)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영축총림 전계사 덕문 스님을 비롯해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등 3사와 7증사 스님이 법좌에 올라 수계 제자들에게 대승계율의 정수인 '범망계'를 중점적으로 설한다.

3일간의 법석을 통해 설해지는 내용은 범망계의 10중계와 48경계다. 10중계는 범했을 경우 승가 공동체에서 즉시 파문을 당하게 되는 가장 엄중한 계율이며, 48경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 등 일상에서 불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계자들은 이타심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리이타'의 보살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서원하게 된다.

보살계산림은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설법전에서 입재 불공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입재식을 거행한 뒤, 공양 후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설계(說戒)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오전 9시 30분 불공에 이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설계가 이어진다. 그동안 수계자들은 과거에 지은 신·구·의 삼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청정한 계율을 담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참회 정진을 갖는다.

회향일인 23일에는 오전 7시 계첩 배부를 시작으로 오전 8시 불공, 오전 9시 10분 수계식이 봉행된다. 특히 수계식에서는 무시이래의 죄업을 향불로 태우는 연비 의식이 진행되며, 이후 가사를 수한 대중이 일제히 금강계단을 도는 장엄한 탑돌이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도사는 보살계의 지속적인 수지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다회 동참자들을 포상하고 있다. 올해도 수계산림에 10회, 15회, 20회 동참한 불자에게는 '기념 메달'을 수여하며, 25회부터 40회까지 5회 단위로 성만한 불자에게는 '성만패'를 증정해 신심을 찬탄한다.

아울러 회향식에서는 영축총림 재적 스님들을 대상으로 우수 장학승을 선발해 '영축장학금'을 전달한다. 이는 계율 도량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종단의 미래를 이끌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주지 현덕 스님은 "보살계 수계산림은 탐욕과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대승보살의 숭고한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 대종사 49재 막재 엄수

4월 3일 부산 미타선원서
"영원한 귀감으로 남을 것"


4월 3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엄수된 지하 대종사 49재 막재에는 종단 주요 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12·13대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한국 불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다 지난 2월 14일 원적에 든 지하당(地下堂) 법융(法融) 대종사가 49재 막재를 끝으로 영원한 적멸에 들었다.

4월 3일 부산 미타선원에서는 지하 대종사의 49재 막재가 봉행됐다. 이날 법석에는 명예원로의원 설정 대종사,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법타·영담 대종사,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등 종단의 주요 대덕 스님들이 참석해 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아울러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등 각계 사부대중이 모여 스님의 유훈을 기렸다.

49재는 종사영반과 헌다, 헌화로 이어진 명복 의식 후, 참석자들은 생전 지하 대종사의 법문 영상을 시청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설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과 선방에서 탁마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하 스님은 일평생 종단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수행자로서 본래면목을 찾기 위한 치열한 정진을 결코 놓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생자필멸의 이치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스님이 남기신 족적은 후학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며 대종사가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해 주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문도 대표 중현 스님은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중 스님들의 배려로 다비와 장례를 원만히 모실 수 있었다"며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배운 묵직한 가르침을 평생의 지표로 삼아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사, 해동용궁사서 방생법회 '생명존중의 장'

4월 4일, 사부대중 800여 명
"나와 타인 동등하게 존중"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4월 4일 관음성지인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본·말사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생명존중 사상 고취와 교구 화합의 장을 열었다.

화엄사 본사와 말사가 뜻을 모아 대규모 합동 방생법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행을 사회에 구현하겠다는 실천적 의미가 담겼다.

이날 법회는 강풍과 거센 파도가 이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됐으나,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결속력을 보여줬다. 본사 화엄사를 비롯해 구례 천은사와 사성암, 여수 향일암, 광주 빛고을포교원, 경기 영응사, 울산 도솔암, 순천 정혜사 등 전국의 말사 신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법어를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생명도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방생의 진정한 의미이자 기본 원칙"이라고 설했다. 이어 "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주변 이웃들과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굳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낸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큰 박수를 보내자"고 대중을 격려했다.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은 "해동용궁사에서 제19교구가 한마음으로 첫 합동 방생법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용왕 방생의 수승한 공덕으로 각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고, 이웃을 향한 자비행이 널리 퍼져나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이 걸림 없이 원만히 풀리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만오 스님 원력 이을 무료급식소 개원

약사정사 '만오밥상' 불사 회향
200석 규모…5월 1일부터 급식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만오밥상' 건립 불사를 회향하고 4월 5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진여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랜 원력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과 나눔의 도량을 세우고자 했으나 여건상 쉽지 않았다"며 "만오 큰스님의 뜻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만오밥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무료급식을 넘어 어르신 돌봄과 요양까지 이어지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자비 실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 스님은 법문에서 "나눔과 자비행이 이어질 때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불법이 생활 속에서 구현된다"며 "만오밥상이 단순한 급식소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수행 도량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오밥상은 59평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철골 구조로 건립됐다. 지난해 9월 불사를 시작해 최근 준공 승인을 받았다. 200여 명이 공양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5월부터 매월 1회 급식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약사정사는 신도들의 40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해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 연화회에 장학금 300만원, 보리수동산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수행의 공덕을 지역사회에 회향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법회 후 약사여래불 점안과 만오 스님 1주기 추모다례가 봉행돼 사부대중은 만오 스님의 원력과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빛의 도량' 울산태화가람대축제 출범

4월 3일, 울산 만디서 출범식
연등행렬 · 사찰음식축제 개최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4월 3일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 교육관에서 불기2570년 울산태화가람대축제 출범식을 봉행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이자 봉축위원장인 혜원 스님은 출범사에서 "울산태화가람대축제는 기존 연등축제를 기반으로 전통 계승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축제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울산의 정신과 신라불교의 맥을 잇는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봉행위원장 혜진 스님은 "연등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사찰음식 나눔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했다"며 "사찰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원만한 회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태화가람대축제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지혜로 잇다, 자비로 짓다'를 주제로 연등의 상징성과 사찰음식 나눔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행사는 태화강 연등축제를 중심으로 국제사찰전통음식문화축제와 태화강 낙화놀이를 결합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특히 연등행렬은 행사장 내부 순환형으로 운영돼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태화강 일대를 '빛의 도량'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견강암 '짜장면 만발공양'

4월 '짜장데이' 맞아 1500인분



부산 사상구 나눔 실천 도량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의 입맛과 활력을 돋우는 짜장데이를 선사했다.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은 4월 8일 고동바위 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짜장면 만발공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해온 무료 급식 공양의 일환으로, 특히 4월 봄날과 짜장데이를 기념해 어르신들에게 별미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양을 위해 견강암은 총 1500인분의 면과 소스를 준비했다. 본격적인 배식이 시작되자 모라동 일대 어르신 10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현장에는 견강암 신도회와 봉사단체 회원 30여 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주지 향공 스님은 직접 짜장 소스를 담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향공 스님은 "봄철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하고, 정겨운 얼굴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국수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심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원오사, 차 한잔에 담은 명상

4월 3일 원오사 경내 일대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가 4월 3일 경내에서 부산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차명상 전문가반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명상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수행과 체험을 결합한 현장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양게송을 시작으로 솔바람 명상길 걷기명상, 대웅전 108배 명상, 다목적실에서의 차명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차밭 사이로 이어진 명상길과 사찰 공간을 활용한 수행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어진 차명상 시간에는 원오사 차밭에서 수확한 '원오사 발효차'를 정관 스님이 직접 우려내 참가자들에게 공양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차를 마시며 맑은 정신을 함양해 일상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오늘의 경험이 수행의 씨앗이 되어 보살마하살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취봉장학회, 인재불사 장학금 전달

창원 불곡사, 4월 2일 전달식



창원 불곡사(주지 도홍 스님)는 4월 2일 관음전에서 제6회 취봉장학회 장학금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취봉 스님 열반 24주기 추모 다례재와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봉행하게 돼 뜻깊다"며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지 도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취봉장학회는 기금 1억원을 넘어선 지역 장학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타적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수행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총 550만원이 전달됐다. 동국대학교 WISE 불교학과 지홍 스님과 마산간호대학교 이선영, 마산대학교 김대윤, 대구보건대학교 박현민, 중앙대학교 한서윤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이 전달됐다. 또 경남관광고등학교 김미진 학생에게는 50만원이 전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